

# 아중호수 재창조로 과거~현재~미래 잇는다

### 지속가능한 관광명소 조성 위해 후백제 역사공원·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등 추진

전주시가 도심 속 친수공간인 아중호수를 재창조하기로 한 것은 전주한옥마을처럼 잘 알려진 관광 명소 외에 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간직한 전주의 숨겨진 장소를 드러내도록 만들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 중 6대 핵심사업의 경우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시민에게 널리 사랑받아온 아중호수 일대를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는 아중호수를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후백제 역사공원은 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6년 말까지 총사업비 83억여 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인근 무릉마을에 교육관을 포함한 전시관과 사당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가 후백제 왕도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평가를 받지 못해온 후백제와 전환대상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후백제 역사공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라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호수 위의 힐링공간인 아중호수 도서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아중호수 수면 위에 조성되는 도서관은 △아중호수와 기린봉의 정취를



아중호수 조감도

담은 '감성 공간' △음악과 미술 등 예술도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오는 2024년 4월 개관 예정인 아중호수 도서관에서는 아중호수와 기린봉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도서를 읽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아중호수 재창조 사업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동시에, 산으로 가로막혀 단절된 공간도 연결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투자 방식으로 오는 2029년까지 전주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호동골 일대 전주 지방정원까지 약 3km 구간에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

사람과 문화를 잇도록 추진한다. 시는 아중호수 일대를 지속가능한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문화콘텐츠 등 즐길 거리도 채워기로 했다. 고래의 형상을 닮은 아중호수를 물과 땅, 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호수면과 호수 주변공간, 빛이 어우러지는 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사이에 위치한 페터널인 고덕터널을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이벤트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철도가 다니지 않아 방치된 터널 내부 1.23km 구간을 '아중호수 비탈터널'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은 별자리 등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만의 특화된 테마 코스로 조성되며, 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계절별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한옥마을에 집중한 관광콘텐츠가 아중호수 일원까지 확대돼 방문 관광객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차별화된 문화와 관광이 한데 어울려 오롯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식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는 22일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동참

### 전주시-전북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는 22일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각종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 △청사 출입 시 1회용품 반입 제한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이용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시는 이날 협약식과 더불어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사이클 체험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북개발공사에 '1회용품 없는 기관'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도 전달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강보협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을 시작으로 전주완산·덕진소방서(3월), 전주MBC(4월), 한국출판문화진흥원(6월)과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숭순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전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일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청 접수 받아 923명 선정

전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올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에 신청한 2,160여명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23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참여 청년들은 3년 후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래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돼 적극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 촉진 및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올해 전년도 가입자 988명과 신규가입자 923명을 포함해 총 1,911명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약 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이 저축을 통하여 형성한 자산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립의 기회가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과 김동현 운영위원장 등이 22일 전주시청에 마련된 을지훈련 상황실을 찾아 24시간 교대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을지훈련 상황실 방문 격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과 김동현 운영위원장이 22일 전주시청에 마련된 을지훈련 상황실을 찾아 24시간 교대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주요시설의 파괴 및 대규모 인명피해 등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상태가 발생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

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올해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기동 의장은 "평상시의 철저한 훈련이 비상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훈련 기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국제로타리 북전주클럽, 남원 산동면 로타리봉사단에 물품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북전주로타리클럽(회장 고범석)은 22일 남원시 산동면 지역의 비로타리안들로 구성된 부절마을 로타리지역사회봉사단(단장 박상길)을 찾아 혈압계, 건강파스와 생화탕, 건강 보조제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건강기원 물품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 산동면(면장 이현재) 관계자와 로타리클럽 회원 20명, RCC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후원 클럽인 북전주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각종 단체들과 상생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고범석 회장은 "폭우와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히 보내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를 통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